영어캠프 참가한 학폭 전력 중2생이 동급생 무차별 폭행

학교는 규정 어기고 전남교육청은 감독 소홀

15분동안 때리고 얼차려 시켜…피해학생 후송 치료

여학생 등이 부산과 강릉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을 무려 15분 동안 폭행하고 심지어 얼차려를 주는 등 인격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배제한다는 캠프 운영방침을 어기고 가해 학생을 추천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자격 검증을 생략하고 참가시켰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학생 관리가 폭력을 자초한 셈이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도 모 중학교 2년 A(15)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무안군 모 대학 기숙사 방에서 타학교 B(15)군의 얼굴·배 등을 20여 차례 때린 뒤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기숙사에 홀로 있던 B군은 달아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했다.

B군은 폭행당한 직후 얼굴 등을 다쳐 목포의 한 대형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영어캠프에서 알게 된 B군과 함께 어울렸으나 여학생들이 B군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까지 싸잡아 욕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중2 대상(112명)으로 실시한 영어체험캠프에 참가 중이었다.

A군은 이날 저녁식사 직후 B군의 기숙사 방(2인 1실)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며, B군은 폭력이 멈추자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생활 지도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당시 기숙사 복도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있던 생활지도교사들은 기숙사 방에서 발생한 폭력을 알아채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인 A군의 경우 집단 기숙사생활을 하는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할 자격이 사실상 없는데도, 해당 학교 측이 참가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전남도 영어체험캠프 운영계획을 보면 학교폭력 가담 등으로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학생과 단체활동 및 장기 합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학생은 추천대상(참가)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A군이 지난 6월 말께 또래 학생을 때려 교내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캠프참가 대상으로 추천했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이 이번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참가시켰다"고 밝혔다.

또 A군은 이번에 서면사과·학교봉사(30시간)·특별교육이수(4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학교 측이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A군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의 학교가 각기 달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커 사전교사 연수 때 참가학생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 봐달라는 자료를 도교육청에 보낸 적도 있다"면서 "내년부턴 국제교육연수원이 여수로 가는데, 대학 기숙사를 빌려서 사용할 일이 없어진다. 부족한 점에 대해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후환경산업전에 몰린 바이어들 제9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6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관람객과 국내외 바이어들이 수질정화시스템 업체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광주서 집배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동료들 철저 조사 촉구

과로와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올해 전국에서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께 서광주우체국 소속 이모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집배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8월 10일께 교통 사고로 크게 다친 이씨는 3주간의 병가를 냈으며, 이날 출근할 예정이었다.

숨진 이씨를 처음으로 발견한 직장 동료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성실했던 이씨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바로 옆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힌 유서가 놓여 있었다.

이씨의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몸이 좋지 않은데도 회사에서 빨리 출근하라고 채근해 괴롭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며 울먹였다.

이씨의 동료 집배원들은 "고인이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고인에게 업무로 복귀하라는 무리한 요구나 강압이 있었는지, 괴롭힘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임의동행했어도 음주측정 불응 땐 공무집행방해 유죄

대법원, 1·2심 무죄 파기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한 임의동행 운전자에게 1·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 곳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금·명함 주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죄'

40대 운전자 징역형 선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금과 명함만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선숙 판사)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모 수입자동차 판매 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13)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사고 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묻고 현금 5만원과 자신의 명함만을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어린이로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상고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가 지난 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을 들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이라며 사형을 해달라고 이날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경우 양형부당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극악 범죄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택시장 교란은 사회적 해악 큰 중대범죄"

광주지법, 혁신도시 등 아파트 전매 브로커들 실형 선고

법원이 아파트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하게 한 뒤 분양받고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아파트 전매 브로커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까지 전매해 이익금을 챙겼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이승호 판사)은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53)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2월 모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공고되자, 당첨을 목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자인 C씨를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하도록 등 총 19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토록 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14년 12월 1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소재 모 아파트 분양권을 D씨에게 18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려는 등 자숙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동승자 추행으로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 운전자 무죄

쌍나팔

○…법원이 차량 조수석에 있던 남성 동승자에게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는 바람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

○…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고권홍 판사)에 따르면 A(여·27)씨는 지난 2016년 5월 4일 오전 4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동승자 B(35)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고 광주시 광산구 한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대를 틀어 2차로에 주차돼 있던 C(38)씨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8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는 B씨는 운전자 A씨의 허벅지는 물론 가슴까지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 판사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A씨가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는데도, 갑자기 기운 상태로 직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은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C씨가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시.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21313	1	북구 두암동 329 반석힐라 101동 1층 110호 31.77㎡	아파트	75,000,000 75,000,000	
2016타경 23043	1	서구 치평동 1330 갤러리303 104동 13층 1302호 152.23㎡	아파트	508,000,000 508,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22903	1	서구 화정동 823-7 234.5㎡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3-12 82.89㎡ 부속건물 물치1.0㎡ 제시외 주택 등 53.8㎡	대 단독주택	168,532,540 168,532,54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 22392	1	북구 용봉동 1377-1 2층 203호 41.85㎡	의원	51,000,000 51,000,000	현황주거용으로이용
	2	북구 신안동 16-12 6층 601호 54.03㎡	다세대	50,000,000 5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21467	1	광산구 지평동 산29 2975㎡[분묘수기소재 할수있으나육안으로식별곤란함]	임야	107,100,000 107,100,000	도시계획도로저촉
2016타경 21993	1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832-4 602㎡[제3자 소유수목8주,제시외비닐하우스37.8㎡,비닐하우스46.8㎡,농막1식매각제외]	임야	9,632,000 9,632,000	
2017타경 214	1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 330 714㎡[수목수십주매각제외.맹지.현황과수원]	전	4,783,800 4,783,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자동차,중기]					
2016타경 66071	1	사용본거지:북구 유동 금재로1번길 22[유동] 등록번호:87더2876 차명:스타렉스[STAREX] 연식:2006	자동차	3,500,000 3,5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제3자,송원주차장]
2017타경 6144	1	사용본거지:청주시 상당구 호미로233번길 74 1002동 202호 [금천동318,장자마을부영APT]등록번호:30구2394 차명:K7연식:2011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광주서구금호동531하나로에프엔씨,제3자장청
2017타경 7314	1	사용본거지:광양시 산업로 237 [태인동] 등록번호:46보4630 차명:BMW 528i 연식:2009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금호동531제3자하나로에프엔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9. 21.[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9. 28.[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9.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우